

## 제8강 제국주의에서 제국으로의 이행

### ◆1교시 : 제국주의의 한계와 이행

#### ▲도입

오늘 주권의 이행 두 번째 시간 할 차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것 이었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집을 가져올게 있어가지고 차 시동을 걸니까 이게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새해이고 보니까 한동안 차를 몰지 않아가지고 보름이상 꼼짝을 안하고 내버려두었는데, 전화를 걸었더니 달려왔어요. 차 앞에 여는 거 있죠? 그걸 열어보더니 배터리에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웃음) 배터리가 못쓰게 됐다고. 그러면서 배터리를 교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자연 상태에 내버려두면 차가 이제 차가 아니게 되는 거 같아요. 차로서의 기능, 차로서의 통일성, 차로서의 어떤 일사불란함, 그런게 사라지고 거기에 다양한 곰팡이라고 표현되었던 그런 것들이 서식을 하면서 일종의 유기체로서의 차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전개가 되는 거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자연 상태 마냥 한 보름정도 나뉘 보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번역을 끝낸 이 책의 후속작인 [다중]의 뒤에 보면 일주일 동안의 바이오폴리티컬 스트라이크(biopolitical strike)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만 삶-정치적인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 시스템이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느냐. 요 파업의 규모는 거의 글로벌한 파업을 염두 해두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완전 자연 상태라고 하긴 그렇죠, 자연 상태와 좀 구분되는 의미인데, 음... 삶 정치적인 파업이 계속된다. 만약에 그냥 고 단계로 나가기 전에, 그냥 아무런 과녁 없는 상태로 우리 사회가 보름이 지속된다면. 이게 뭐가 생길 것 인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 ▲주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권이라는 문제를 다루는데,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연상태인 것처럼 응당 있어야하고, 그... 오래 전부터 있어온 것처럼 우리에게는 인식이 되고, 또 이제 신문이나 방송이나 정치권이라거나 이런 문화적, 정치적인 영역들에서 바로 이 주권의 상상성을 그 끊임없이 아지프로[agitation propaganda]하는, 선전, 선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주권) 대체 뭐냐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전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강의하는 첫 페이지.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말일까? 우리가 소버리언(sovvereign)하면 주권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원천이 어디인가를 궁금해져가지고 사전을 뒤져보니까, 라틴어에서 수페르(super)라고 하는데서 나왔다고 돼있어요. 우리가 영어에서도 슈퍼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슈퍼무언이라거나 슈퍼맨이라거나 뭐 이렇게 자주 쓰죠. 위라고 하는 개념인데 위(上). 아래(下)하고는 구분되는. 이게 이제 영어에 들어가면은 13세기에 프랑스에서 수베행이라고 하는 고 단어에서 같다고, 이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정의(definition)를 보니까 ‘인디펜던트 하고, 독립적이고 완전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두드러진 그런 다른 것 보다 더 뛰어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돼있는데. 우리는 보통 우리 사회를 인식하거나 몸을 인식하거나 조금한 조직을 인식할 때에도, 위아래를 구분하는데 습관이 되어 있죠.

음... 지난번에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신문상에서 다지원 인터뷰 하러 왔을 때, 우리는 원장이 없다고 했어요. 다지원에는 대표가 실제로 없다, 사무 보는 사람 있고, 강의 관리자 있고, 뭐 어쨌구 이렇게는 되었지만은 음... 원장이 없다고 했더니 그건 참 곤란하다고, 인터뷰를 쓸라면 데스크에서는 기자가 그 인터뷰 대상 조직이 있으면은 누구를 만나는지를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언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하는데 이 사람의 말이 그냥 이 조직을 대표할 수 없는 말일 때에는, 신뢰를 안두기 때문에 데스크가 자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를 찾는 거죠.

representation.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몸이 있으면 그 몸을 표현하는, 재현해내는 존재, 일종의 우두머리, 우두머리를 찾는 거죠. 전쟁을 할 때에도 보면은, 우두머리를 치는 전쟁이 근대적인 유형의 전쟁이죠. 우두머리를 일단 제거하면, 머리를 자르면 그 존재는 없어진다는 그런 관점. 그게 우두머리 박탈, 머리 박탈 모델인데 그러고 나서 네트워크 전쟁이 되면서는 머리박탈 모델 대신에 환경 박탈 모델로 전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 아예 불을 질러버린다거나, 그런거 있죠. 베트남 전쟁 때에 거의 막 게릴라 형식으로 나오니까 고엽제를 막 뿌려가지고, 그 베트남들이 살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없애버린 환경박탈 모델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주권의 문제에서는 머리박탈 모델, 참수 모델이라고 하죠. 프랑스 혁명기에도 그랬고, 아직도 거긴 여전히 전통으로 남아있지만, 단두대 할 때 단두. 머리를 자른다 할 때 머리를 자르면 승리한다고 보는 거죠.

결국 우리는 머리의 구성, 머리라고 하는게 어떻게 생기냐, 대표라고 하는게 어떻게 생겨나는가. 공간 인식에서의 위쪽 아래쪽이라고 하는 이 어떤 아주 습관화된, 우리한테는 습관화 되어 있는 이 사고법이자 또 어떻게 보면 실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구조.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사실은 이 위를 의미하는 주권을 살펴는 거나 마찬가지다. 주권이라는게 왜 필요하지? 어째서 끊임없이 다양하고 차이적인 존재들 위에 뭔가가 들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국가 같은게 그런게 아녘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 위에 융립되어있는 하나의 환상적 공동체이다. 도이치(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맑스가 정의한 국가관이죠. 시민 사회 위에, civil society 위에 융립되어 있는 어떤 거. 근데 이 state라고 하는 것은 원적으로 보면은 예컨대 status 이런 말로 거슬러 올라가고 나중엔 이게 보면은 stand를 의미하는 말이죠. 멈춰 세우는 거. 이것(state)의 역동성을 고정시키는 기능을 갖는 그런 것이면서, 이게(status) 중세에는 신분의 의미를 가졌잖아요. 신분이란 것도 딱 어떤 레벨로 고정시키는 것이니까 역동성 자체에 의한 정지, 중지의 의미를 갖는 거죠.

국가라는 것 자체는 시간을 멈추게 하는 거죠. 엄밀히 보면, 시간을 계속 고정시키는. 그래서 안정에 의한 요구라 하는 것은 음.... 역사의 종말에 대한 요구하고 항상 연계되어 있죠. 뭔가 막 변화하고 가변적인 것 보다는, 하나로 결집되고 멈추어서 그냥 고정되는. 이걸 보통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욕망이든,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국가 속에는 죽음 충동이 내재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겠죠.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하는건 끊임없이 죽음하고, 적어도 최소한 메타포 상에서 그다음에 실증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것이다. 그 얘기를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제국주의

우리가 제국주의 문제로 조금 한번 돌아가보면. 제국주의라고 하는게 역사상에서 나타났던 근대적인 주권의 형식이다, 하나의 form이죠. 그렇게 지난 시간에 봤는데. 제국주의가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은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 할 수 있겠는

데. 그 중에서 이 생산의 규모, 범위. 이게 내셔널한 차원, 로컬한 차원에서 내셔널한 차원으로 나아갔을 때 내셔널한 규모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갈라져 있는 것이고 이 단위로 쪼개져 있는 것이니까, 이게 n개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계속 내셔널한 자리의 매커니즘을 갖는 한에서는, 이게 그 내적인 매커니즘은 잉여가치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것이었고.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니까. 잉여가치의 소비문제는 외부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고 결국엔 이 외부를 계속해서 장식해 들어가는 그 확정의 패턴 - 이게 나타난다. 거기까지 지난시간에 우리가 했죠.

이 외부의 필연성. 그러니까 장식의 모델인데, 이게 한군데서 출발해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어떠한 내셔널한 스테이트도 자유운동을 이렇게 해가는 것이니까 요 지점에서 반드시 충돌이 생기는 거죠. 뭐라고 부르죠? 이게 전쟁(war)이죠.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건데, 이게 공간을 이쪽으로만 펼치지 말고 이쪽까지 다 펼쳐 붙이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게 연합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어떤 형태로건 전쟁의 경계면 상에서 벌어지게 되는 건데. 이게 내셔널들의 어떤 갈등이고, 근대의 지정학적인 인식으로서의 국가간 체계. inter-state 시스템이죠. 국가간의 체계인데. 여기에서는 요런 유형의, 내셔널들의 갈등에서의 전쟁이라는게 내적으로 필연성을 갖고 계속 작동하게 되는거죠.

#### ▲오늘날의 전쟁의 구조 - 걸프전의 예

음... 근데 이 전쟁이 제국주의간 전쟁의 구조. 일단 식민지는 잠깐 접어두고요. 제국주의간 전쟁일 때는 강대국들 사이의 영토 분할, 영토 확장을 위한 싸움이었잖아요. 식민지 영토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싸움이었는데. 오늘날의 전쟁을 한번 가만히 보게 되면. 예컨대 미국이 이라크전 때, 1991년의 걸프전을 보게되면은. 음... 전쟁의 명분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먼저 침략을 했죠. 침략을 했는데. 쿠웨이트의 점령을 사실 그 단지 상황을 보면 미국이 용인을 했거든요. 쿠웨이트 침략하는 것을 미국은 다 알고 있었고, 사전에 어떻게 보면 사인까지 보냈는데. 침략한 후에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서 군대를 출군을 해가지고 원위치로 복귀하라고 말을 했고 후세인이 그걸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걸프만에 있는 함전으로부터 포를 쏘기 시작하게 전쟁의 시작이었던건데. 한참 싸우다가 이라크는 다시 쿠웨이트에서 떠났습니다. 떠나고 복귀를 했는데. 만약에 2년의 전쟁의 구조를 보면은 당연히 그러한 것이 아니어야 되고, 미국이 이라크를 갖다가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원료를 가져오고, 원료라고 해봤자 석유지만은, 뭔가 상품도 팔아먹고 자본도 투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질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라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쟁이 상당히 유익했던 것이 후세인은 바로 그 전쟁을 통해서 그... 그 전쟁에 객관적인 성경의 문제로 보면은 마치 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국내적으로, 북부에서는 쿠르트가, 이라크 내부에서는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증폭되어있는 상황이었고, 석유 채굴하는 곳에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소열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파업을 하고.

중동에 있는 석유 채굴자들은 다국적 노동자들입니다. 이게 그냥 그 민족 이라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노동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부분 다 다국적 노동자들로 돼있어서, 예컨대 이슬람교와 같은 종교적인 혹은 문화적인 이 아교품을 가지고 엮어낼 수가 없어요. 그니까 성전에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고 그냥 안식일이 되고 지 몇대로 술 마시고 논다거나 이런식으로 되어버리니까, 이테올로기적인 봉합장치가 노동자들에게는 가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번번히 파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불만에 차이는 dangerous class 위험한 계급들을 어떻게 해서든 훈육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라크의 정유고는 얼마 안됐습니다. 26만정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노동자들을 갖다가 그 뭇니까 강제 징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군복을 입힌 다음에 전선에 내보냈거든요. 이때에 미군의 포탄에 맞아 죽은 사람들은 상당부분이 요 다국적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니까 우선 죽지 않은 사람들도 맛보기가 되는 거잖아요. 비상 전쟁이라고 하는, 비상 상태이니까 우리가 몸을 갖다가 조심해야겠다, 한동안 일단은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경고를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위험한 세력들의 상당부분을 죽여대는 거죠. 마치 17년 혁명 당시에도 많은 분석들은 소비에트, 그니까 17혁명 이후에 러시아에서 끊임없이 관료제와 부르주아적인 제도들이 물밀 듯이 그 소비에트를 덮치게 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전선에서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죽어버려 가지고, 특히 석명의 투신하던 급진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간 바람에 실제로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에서 원인을 많이 찾곤 하는데. 이런 것들(dangerous class)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라크의 경우는 전쟁이 쓰였죠. 그 다음에 쿠르드에서 인제 전시를 틈타가지고 독립운동을 펼쳐잖아요. 미국이 딱 치기 시작하니까 쿠르드 쪽에서도 이게 기회이다 해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후세인은 거기에 화학무기를 살포했죠. 이번에 바로 그게 다시 2차 전쟁의 명분으로 됐지만, 생화학 무기를 살포해가지고 쿠르드족의 상당부분을 쥐 잡듯이 박멸을 했던 말이지요. 이런식의 현상이 국내에서도 북부에 대해서 가능했던 것은 전적으로 그 전쟁 덕분이예요.

후세인은 아마 91년 전쟁이 아니었다면은 내부적인 동요에 의해서 전복됐을 가능성이 더 높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2003년까지니까 12년 동안의 장기집권을 할 수 있었던 조건이 되는데요.

#### ▲오늘날의 전쟁 - 비대칭전

그럼 대체 이런 전쟁이 대체 그럼 뭘 보여주는 거냐?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느냐? 단지 이것이 국지적인 전쟁이다, 요런식으로 이걸 국지전으로만 파악하면은 베트남 전쟁도 국지전 이었고 한국 전쟁도 국지전 이었죠. 냉전기에 나타났던 거하고 똑같으니까. 성격이 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냥 국지적으로 나타났어 그러면. 근데 베트남전이랑 한국 전쟁은 성격이 유사하지만, 이라크 전쟁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때는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소위 범 사회주의 진영 -제가 의미하는 사회주의는 보통 생각하는 사회주의 개념하고 다르다는 것은 미리 알아두시고요- 하고 자본주의적, 자칭 민주주의 진영이죠. 이들 간의 갈등이 인제 전개되는건데, 진영 대 진영의 싸움 속에서 국지전이 벌어지는건데, 이걸 그게 아니고 91년도에 이라크가 공격을 받을 때, 즉 미국이 이라크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나라. 병사로 해봐야 26만 밖에 안되는. 한국 군대의 정규군하고 절반도 안되잖아요. 그렇게 조그만한 군대를 가진 나라. 군비로 보더라도 한국군에 비교도 안되는 나라인데 이거를 치는데 수십개국의 나라들하고 연합을 했는데. 이 수십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들이였거든요. 거기에는 영국도 들어가고 일본도 당연히 들어가고 이탈리아 어찌구 해가지고, 범 서구진영. 한국까지 포함되는 범서구 진영이 연합을 해서 이 이라크라고 하는 조금한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 시키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죠. 덩치만 보더라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쪽은 엄청나게 거대한 거구이고, 저쪽은 왜소한. 이 측면에서 보면 완전한 비대칭 전쟁이죠. 비대칭전.

#### ▲오늘날의 전쟁 - 전쟁의 명분

그 다음에 전쟁의 명분이 예전하고 다릅니다. 예전에 전쟁의 명분은 애국—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걸 보면은 노무현이 다양한 순간에 ‘국익을 위해서 나는 한미 관계를 잘~ 어찌구’ 할 때 동원하는 국익론이죠. 애국론이란 국익이라고 하는게 전쟁에 중요한 명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전쟁을 할 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거든요. 일부에 제국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하지만 국익이 사실은 뒤에 깔려 있는 것이라, 결국엔 이라크에서 석유를 뺏으려고 하는것이잖아, 거기에 분석을 하죠. 물론 석유라고 하는 것도 미국의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한데, 하여튼 명분부터 먼저 따져보면 미국이 전쟁할 때 국익을 내세우진 않죠.

#### ▲전쟁의 명분 - 인권

일단.. 예컨대 발칸에 쳐들어갈 때는 인권이라고 하는,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아마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준전쟁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명분들이 인권에서 나오죠.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를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위해서 라고 말을 하죠. 또 많은 경우에 평화를 위해서. 국익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째서 한 나라가, 한 나라와 연합한 (미국을 중심으로 돼 있지만) UN군. 연합국이 인권, 정의, 평화. 이런 보들보들한 용어이고, 조금 더 철학적으로 보편성을 갖는 용어이죠. 보편성을 갖는 명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가? 앞으론 사실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이럴 것 같아요.

이런 보편적인 명분(인권정의평화)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이제 이행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국주의는 국익을 위한 국가이익에 확대기 때문에 영토적 확장의 문제인데, 외부의 병합의 문제이고. 여기서는 요런 것들(명분들)이 사용된다라는 거죠. 예컨대 인권 같은 경우에는 NGO들이 많이 내거는 것이잖아요? 인권운동, 사랑방도 있고 다양한 인권운동 단체들이 있습니다. NGO들의 어떻게 보면은 운동적 관념체계를 가져가려고 할 때 주권이. 그래서 알랭 바디우가 쓴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에 그 첫 장을 보면은 첫 부분이 인권에 대한 분석인데, 지금은 인권 담론이라고 하는게 해방담론이 아니고, 전적으로 권력의 담론으로 바뀌었다. 인권은 전쟁을 위한 사전 포석일 뿐이다. 그렇게 까지 비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니까 NGO들이 선한 경우에서 인권 운동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제국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흡수될 그런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는 겁니다.

#### ▲전쟁의 명분 - 평화

그 다음에 이제 평화를 보면. 평화운동, 평화를 우린 좋은 개념으로 보잖아요. 선한 개념으로 보지만 평화가 사실은 전쟁의 명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서 무슨 후트족과 무슨 족 사이에 분쟁이 있다, 이걸 내버려두다간 좀 이따간 평화를 위해서 군대가 들어가죠. 아주 연합군이 가가지고 그 지역 전체의 패권을 요 소수민족들간의 분쟁을 그 진압하고 평화를 가져온다는 명분으로 상위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평화롭게 되어버리죠. 근데 이 평화가 아주 고요한 죽음의 평화. 정지의 평화. 더 이상 사람들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떤 에너지의 움직임이 더 이상 없는 상태의 그런 평화를 가져오고서는 그걸 평화라고 부르는. 근데 평화의 상당한 부분이 그런 식으로 흡수되어있는 상태이죠.

### ▲전쟁의 명분 - 정의

그 다음에 정의라고 하는걸 보면은, 이게 justice인데. just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옳아, 정당해. 말 그대로 정당성이죠. 진리나 정당성에 대한 주장을 사법부, 그 요거는 자기 맘이다 우리가 정당하다. 그래서 진리 판단에 능력을 사법부가 갖고 있는 것으로 되죠. 지금 뭐 헌법재판소 이런데서 판결이 나면 거의 최종적인 판결로 나잖아요. 그래서 이명박의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있다하니까 재판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이런 어떤 최종적 진리의 물적 장소가 사법부에 가있는 건데, 이 전쟁을 하는 미국이 인제 이 정의의 최종적 장소로 나타난 거죠. 미국이 진리의 장소로 나타난거죠.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저런 피라미드에서 군주로 하는 제국이 진리의, 진리를 자임하는 그 어떤 장소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제 2차 걸프전, 이라크전에서 더 뚜렷하게 봤다시피, 후세인은 일국의 수반이었죠, 어쨌건. 근데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재판소로 데리고 갔잖아요? 재판소로 데리고 가가지고 서는 거기서 인제 재판을 하는 그런 광경들을 tv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제, 후세인이 그 죄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건데 죄목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했다’, ‘91년 전후에서 쿠르드족에 대한 화학무기 살포해서 대량학살을 자행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죄목으로 해서 심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제국주의)만 해도 상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후세인은 일단 전쟁 범인으로서 체포가 되고 패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죄목 대부분은 전쟁의 명분이 아니고 경찰의 명분이에요.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에 후세인은 나쁜놈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다, 범죄자다, 그러더니 심판을 받아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전쟁에서는 경찰이 나서는 일은 없죠. 경찰이 현대 전쟁에 나서가지고 싸움을 한다면 그건 좀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일터인데 경찰적 관점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를 식민화 하진 않지만, 적어도 연합군들 상당부분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정기간 거기에 주둔을 하면서 그 nation building 이걸 국가 건설이라고 볼 수 있겠고 국민 건설이라고 볼수도 있겠는데. 지금 한국군들도 이라크에 파병될 때에 거기에 가서 교량을 쌓고 통신설비를 끊어진 걸 연결하고 이런 명분으로 거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통과 되서 나갔잖아요. 토목적 명분을 달고 나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말 옛날에 정주영이나 이명박이 잘하던 빌딩 세우는 거, 건축적 이유로 나간다는 거죠. 그니까 전쟁은 보통 destruction(파괴)하고 연계되는 건데, destruction하고 정 반대되는 말이 building이죠.

### ▲nation building

지금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2003년 5월달에 끝내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nation building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군 전체가 다 그렇죠. nation building이란 이유로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쟁은 끝났고 우리가 주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우선 요러한 개념 자체의 등장도 아주 새로운 거죠. 옛날엔 없었던 거죠. 파괴하고 자기네들 가서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나라를 파괴된 건 복구시키고 없던 걸 만들고 그 국가 내부의 주권을, 국민 주권을 가다듬는 데에 군대가 서포트를 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 nation building의 비용이 전비보다 훨씬 더 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꼬트머리에 수치를, 달러에서 뒤에 조가 붙은 건지, 아닌 건지 확신할 수 없어서 말을 잘 못하겠는데, 이라크에서 미국이 석유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통해서 거둘 수 있는 이득 전체가 1200~1300억 달러로 추산이 됐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2개월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소요된 경비, 그게 거의 그거랑 맞먹었습니다. 1200~1300억으로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라크전으로 인한 손실액은 이것의 3배, 4배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건 어디서 나가느냐. 전부 nation building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이 가가지고 일단 먹고 살아야죠. 그 다음에 무기는 어쨌든 계속 소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자살 폭파범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죽거나 다치거나 병들어서 본국으로 송환되어 오면 미국은 거의 군사 국가이기 때문에 군인들에 대한 복지, 이것은 거의 세계 최고에 가깝거든요. 그니까 그 사람들을 죽을 때 까지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뒷바라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정신병원이나 보통 병원에 가서도 그렇고, 다 돈을 가지게 되어있고, 가족들의 생활비까지 다 대주거든요. 이런 비용들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비공식적인 미국의 부채액이 1조 달러에 접근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라크 전쟁으로 4~5천억 달러를 지금 빚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천억 달러의 규모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가 하시면 한국이 1997년 11월에 IMF에 주권을 넘겼을 때, 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IMF에 넘어갔을 때에 부채액수가 1천600억 달러였습니다. 이게 어떤 정도의 규모인지 알 수 있죠. 1천600억 달러에 한 나라의 주권이 넘어갔는데 미국은 1조 달러의 부채를 쥐고도 아직 안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신기한 일이죠 어쨌든. 정치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정치경제학적으로만은 풀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아주 묘한 매커니즘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 수치는 우리 얘기에서는 본질적이지는 않아요.

nation building을 한다. nation building개념은 제국주의 전쟁 때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nation building을 통해서 그 지역, 그 지역은 dangerous zone이거든요. 위험 지대를 바로 글로벌에 유기적 부분으로 편입시키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후세인만 경찰에 의한 치안대상으로 됐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의 정규군이나 비정규군 모두가 치안 대상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문에서 많이 봤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체포되어 가지고 수용소에 들어가잖아요.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미군들이 성고문을 한 사진들을 많이 봤었죠? 근데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기술이 아니거든요. 고문은 전쟁할 때 사용하는게 아니라는 거죠. 고문은 경찰이 쓰는 거죠, 원래. 경찰이 내국인들을 다루기 위해서 고문을 사용했지, 전쟁 포로를 고문하는 것은 제네바 협정을 위반하는 겁니다. 고문할 수 없게 돼있거든요. 일단 포로로 된 사람은 비록 수용되어있지만 정상적으로 대우해 주도록 전쟁협정에는 명시가 되었는데, 고문을 하는 것이죠. 고문을 통해서 바로 '어딴냐, 불어라' 해가지고 포격할 장소를 또 물색해서 컴퓨터로 전송하면 여기서 포탄이 날라가고, 이런식의 방법을 채택하는데...

## ◆2교시: 제국주의에서의 제국주의 이행계기들

### ▲오늘날 전쟁의 특징 - 내부화

바로 이 전쟁의 치안화. 군대의 경찰화, 전쟁의 치안화. 이게 지금의 전쟁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죠. 그래서 사실상 정의라거나 평화라거나 인권이라거나 이런게 다 치안 개념이거든요. 전쟁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 전쟁은 이런걸 위해서 사용된게 아니었으니까. 예부터 포로로 만들어서 노예로 삼는다고나, 하여튼 근대적인 의미로 보면은 영토의 확장을 통한 국익의 도모였죠. 이런건 다 경찰 개념입니다. 내부적 경험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라크는 예컨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외부잖아요? 독일 입장에서 도 외부죠. 외부의 대해서 왜 내부의 룰을 내부에 이데올로기, 관념 체계와 내부의 룰들을 적용하게 되는가? 오늘날 전쟁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제국주의 시대에도 필연적이지만 어쩌면 글로벌에서도 필연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글로벌에서의 필연성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라는 책에 1부가 전쟁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근데 이 필연적인 전쟁에 대해서 내부적 논리-(외부 변화도 있잖아요?), 내부논리가 어떻게 외부라고 인식되는 그 대상에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제국의 유명한 테마. “더 이상 외부는 없다.” - 더 이상 외부라고 하는 건 없다. 이 명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내부와의 갈등이 이렇게 여러 동심원을 통해서 전개 되는게 아니고, 단일한 내부 속에서 움직임으로 변형되었다.

### ▲카우츠키 - 초제국주의론

그러니까 음...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맑스주의 역사를 했었는데, “카우츠키”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사회민주당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근데 이 사람의 그... 대안질서 이론중의 하나가 초제국주의 이론이 있습니다. 레닌이 초제국주의론을 아주 모질게 비판했는데요. 초제국주의론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유럽공화국으로 가는 일종의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카우츠키는 유럽사회주의 공화국을 만들자. 유럽공화국. 근데 유럽공화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지금 현재 초제국주의 경향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들간에 전쟁이 일어나는게 아니고 서로 연합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제국주의 국가들이 서로 연합을 하게 됐을 때, 사회민주당이 각국에서 약증을 해가지고, 의회의 선거에서 득표를 많이 하게 되면, 이 제국주의 연합인 이 국가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각국 사회민주당의 연합체가 초제국주의인 유럽제국주의에서 권력을 장악한 그 상태를 유럽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유럽사회주의공화국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되게 평화적인 방식으로 유럽 전체가 사회주의공화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유럽은 어떻게 보면은 카우츠키의 생각에 아주 유사하게 - 90년대에는 갔다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은 다시 신자유주의 해가지고 다시 역전현상이 나타나지만, 90년대 중반에는 유럽의 한 14~5개국 정도가 다 사회당 정권이 득권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의 이미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접근했던건데...

### ▲레닌 - 초제국주의 비판



레닌은 이걸 비판하면서 초제국주의는 어떤 경향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객관적인 필연성을 갖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제국주의들 사이에 전쟁경향은 이 경향보다 더 강력한 경향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제국주의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 프롤레타리아트가 혁명을 내전으로 전환시켜서 자국의 정부와 맞서 싸울 때-자국의 정부에 협조하지 말고 (카우츠키는 그래서 협조를 주장했습니다)- 제국주의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자국 부르주아지와 협력해서 오히려 유럽의 연합이라는 쪽으로 가도록 만드는게 더 낫다고 봤죠. 근데 전쟁 제국주의가 전쟁 경향이 더 뚜렷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가 내전으로, 내전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서 권력을 잡는게 필요하다. 그래서 혁명의 그 유럽적 확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혁명을 달성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레닌은 봤고. 카우츠키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내 세웠었는데, 여기에서 내전의 일반화, 전쟁을 내전으로 하는 테마가 나와요.

#### ▲카우츠키주의, 레닌주의의 현실화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고 있냐고 하면은... 그 당시는 레닌의 이론이 더 현실에 부합되어서 카우츠키론은 짜그라 들었죠. 완전히 사회 애국주의적인 논리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초제국주의적 상황과 유사한 그 무엇을 목격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부르주아지들간의 연합이라는 현상들을 보는 거죠. 근데 이 초제국주의적 상황이 카우츠키 생각처럼 유럽의 평화를 가져온게 아니고 유럽공화상태를 가져온게 아니고 전지구적인 내전, 어떻게 보면 레닌의 테마를 가져오는, 두 사람의 주장이 껴뭉되는 특이한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레닌은 항상 내전을 어떻게 일으키느냐를 고민한 사람이죠. 내전을 일으켜야 혁명이 일어나는 거니까, 프롤레타리아트가 자국의 부르주아지에 도전할 수 있게 하려면 뭘 해야되느냐? 바로 당도 그걸 하기위한 수단으로 그 사람은 생각을 했던 것 이죠. 결정적인 내전주의자인데, 이 내전은 레닌에게는 끊임없는 미래였어요. 항상 자기가 달성해야할 과제, 그거였었죠.

근데 지금 내전은 바로 이런(국지전, 치안화, 비대칭전) 전쟁으로 인해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글로벌한 더 이상 외부가 없는 차원에서의 바로 이 제국 주권(Sovereignty)하고 다중(Multitude) 사이에 갈등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니까 정말로 이걸 레닌주의가 현실화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차원(국지전, 치안화, 비대칭전)에서 보면 카우츠키주의가 현실이 됐습니다. 근데 카우츠키주의가 현실화 되자마자 레닌의 문제가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뭐가 전쟁이 있느냐, 그냥 짓누른 거 말고 뭐가 있다는 것이냐' 하고 당장 반문이 나올 수 있겠는데...

#### ▲외부의 소멸

여기에서 우리가 전쟁에 대한 이미지를, 전쟁에 대한 고전적 의미들을 바꿔야 되요. 전쟁 그러면 폭탄, 그 다음에 몸이 막 쪼개지는 피 튀김, 이런 것만을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됐는데, 오늘날의 전쟁은 물론 그런 것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영역들이 실제로는 전쟁의 범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전쟁이라고 하는게 우리는 군사적 차원으로만 이해해 왔다는 것이죠. 군사적 의미의 전쟁. 그게 아니고 정치적 차원에서 봐야 되요. 군사적 차원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게 전쟁의 전지구적인 치안화라고 볼 수 있겠어요. 치안의 문제. 근데 치안의 문제가 오늘날 사용하는 명분은 안보(Security)라고 하는

안전하게 하는 것. 대체 누구를 안전하게 하는가가 문제겠죠. 근데 안보의 문제로 됐는데, 옛날에는 전쟁할 때는 안보 때문에 전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적극적인 경우에는 국익이고, 두 번째는 방어죠. 근데 국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는 사실상은 허용되지 않았죠. 정당성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어의 경우에만 전쟁은 정당했죠. 물론 카전 이후로 국익을 위한 것을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늘상 있었지만, 어쨌건 정당화 될 수 있는 건 방어였는데, 이제는 방어에서 안보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방어에서 안보로의 전쟁 이념의 변화는 바로 외부의 소멸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표입니다.

#### ▲테러에 대한 전쟁

방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방어하는 거죠. 우리는 세로부터 세균이 들어오면 항체가 형성된다 해가지고 내부가 외부에 대한 방어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 간에 보면은 외부에서 우리를 침략하고자 할 때 방어한다, 이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외부가 만약 없다면 일단 어떠한 단조로 봤을 때 그 단위에 안전보장, 이게 유일한 전쟁의 이유로 대두가 되는 것이죠. 안보 논리가 전쟁의 명분으로 사용이 되는데. 오늘날 안보논리에 입각한 전쟁. 테러에 대한 전쟁이죠. 테러, 어떤 공포적인 것, 폭력을 사용하고 어쨌구. 사실 폭력을 사용하건 안하건 간에 다 테라라고 불러대서 이제 테러 아닌게 없게 됐죠. 말 한마디에도 테러를 읽어내는게 지금이잖아요. ‘저거 완전히 테러적인데?’ 그러니까 테러에 대한 전쟁의 경우에는, 적의 문제가 안보라고 하는 척도에 걸려서 설정이 됩니다. 안보를 위해서 하는 전쟁이 테러에 대한 전쟁이 된다는 경우인데. 지금 사실상 예를 든 이라크 전쟁이라거나 1차와 2차 사이에 아프카니스탄 전쟁이라거나, 노무현 정부로부터 일본, 독일, 이탈리아 전부에서 요즘 의회에 다 테러에 대한 전쟁 법안은 개의로 돼있거나 통과 돼있거나 그런 상태이죠. 완전히 일반화된 전쟁 논리가 돼있죠. 테러에 대한 전쟁을 통해서 하여튼 어떤 국가 안보, 주권의 안보가 보장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글로벌 주권, 제국의 안보로 연결되는 그 하위 마디들이죠.

그러니까 테러에 대한 전쟁에서는 전쟁 대상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위, 농성, 과격한 주장, 그 다음에 북한이랑 중국처럼 인권에 대한 유린 - 뭐 이런 거 있죠? 인권을 침해한다, 이런 거. 이제 그럼 우리가 말을, 언어행위 있죠? 언어행위까지 테러에 포함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우리의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7조에 이적표현물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적표현, 적을 이롭게 하는 표현물이라는 건데 그건 주로 언어행위였습니다. 팜플렛을 찍어낸다거나 색을 찍어낸다거나 술자리에서 누구 욕을 한다거나 김일성이를 예찬한다거나 이런 언어행위. 이게 국가안보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안보법 마찬가지로 인데. 안보의 문제가 다루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아주 내밀한 심리적 문제까지도 안보대상이 되는 거죠. 폭력행위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러의 범주가 앞으로 무한정 넓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공할 전쟁 개념이 들어서고 있는 거죠.

#### ▲정치적인 유형의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라는 바로 그 점인데. 정치적인 유형. 이것을 만약에 삶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해보는다면, 예컨대 공장에서 현대나 대우나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체들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거나 프로그램을 생산하거나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한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 방해를 하건 다섯 명이 방해 하건, 삼천 명이 방해를 하건 방해를 한다. 생산과정에 대한 방해 행위. 이건 바로 테러로 연결 되는 거죠. 처벌해야 될 걸로 나타나는 거. 요즘은 테러에 대한 게 꼭 폭력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테러는 폭력 진압으로 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통제수단들을 채택을 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지금은 화폐에 대한, 화폐를 통한 진압이죠. 그래서 벌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합니다. 처음 벌금을 한국에서 도입할 때에는 노동조합 전체의 예컨대 ‘20억의 손해배상을 하시오’ 이런 식으로 벌금을 때렸어요. 근데 그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노동자들 입장에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처벌 안 받게 된 거죠. 그니까 배째라는 식으로 그냥 돈을 안내고 버티고, 그게 새로운 과업 쟁점이 되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하고 각 개개인한테 ‘이번 불순행위에 참가하여서 500만원 내시오’. 그 500만 원정도로 매긴다는 거예요. 500만원이라고 하는 건 한 개인이 그렇게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희생을 하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적은 돈도 아니죠. 몇 백 만원을 꼭 매겨가지고 하니까 노동자 차원에서도 사람들이 ‘선동하다가 걸려 들어갔는데 500만원 맞았데.’ 이러면 조합이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엔. 하나 상했지, 뭐. 이런 식으로 개인책임으로 넘겨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은 50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실질적 벌금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불러가서 재판할 때도 20,30억 때릴 때에는 막 노동조합 전체 성원들이 재판소로 몰려가버리니까 재판이 이루어지는게 불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몇 명 딱 골라가지고 전화한 다음에 벌금 때리니까, 아주 뚝니까. 선별 처리되는, 아주 샘플링으로 처벌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서 공포가 이제 짝 퍼지니까 저항행위들이 그냥 사그라드는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 ▲이적표현물 조항과 저작권법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국가가 좌익 서적들을 출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놓고, 이적표현물 조항으로 다 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논리적으로 저작권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저작에 대한 소유권을 돈을 가진 사람이 확보할 수 있게 돼있고, 다른 데서 그것을 출판을 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성이 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정권 혹은 우리의 기업에 위협적이다 싶으면 저작권을 사놓으면 되는 거죠. 출판 안하고, 기업체입장에선 돈 몇 푼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그 이유인줄은 모르겠으나 좋은 책들이 실제로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저작권이 팔렸다고 하는데 책이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대안적 방식의 문화적 전쟁이 저작권보다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가능하고, 실제로 저작권법의 작동 매커니즘은 그런 것만을 통해서 열어지는게 아니죠. 각 개개인들의 지적, 정서적인 표현들 이게 하이라이트를 두고 누가 이것의 소유자인가를 명시하고 이것의 확산을 저지하고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지적, 정서적 활동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죠. 근데 이 문화적인 것도 전쟁이고, 정치적인 것도 전쟁이고, 군사적인 것도 전쟁이고, 지금 현재는 전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글로벌하다는 것이죠. 전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 ▲언어를 둘러싼 전쟁

그럼 예컨대 대표적인 사례로서 언어를 한번 들어보면. 언어를 둘러싼 전쟁. 이 말을 들어도 별로 이상하지 않잖아요. 언어하고 전쟁이라? 그럼 약간 서먹서먹할 것 같은데 우리한

텐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근데 영어하고 프랑스어와의 전쟁. 그렇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복거일씨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공용어로 쓰자, 98년에 주장을 했는데. 이 영어를 공용어로 쓰자고 하는 주장 자체가 갖는 맥락은 복잡하니까 접어두더라도, 영어를 써야 지금의 글로벌한 경쟁 상태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생산력, 이게 각 개개인들에게 확보가 된다는 거죠. 지금의 네트워크화된 시대에 언어적 네트워킹은 영어로 이루어지는데, 네트워킹에서 빠져있는 존재들이 무슨 생산성을 갖다 답하려 할 수 있느냐. 빨리 영어로 이루어진 배에 올라타야 된다. 이게 복거일씨의 기본 주장입니다. 이 배에 올라타지 못하면 다 도태된다는 거죠, 일단. 빠른 시간 내에 도태 될 거다. 일단 영어공용화를 시켜서 영어라는 배에 올라타면 승산이 있다. 고런 식으로 복거일 씨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영어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들,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게 영어권 이외의 지역 사람들에게 내적인 욕망으로까지 되어서 이제는 뭐 스스로 영어를 배울려고 하고, 혀 밑에 조직을 짜르고 그런 식의 현상까지 나타나서 이제는 영어의 확산이라고 하는 문화전쟁이 내부적인 욕망 그 자체로까지 된 상황이죠.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찌면 유럽어들 간의 전쟁에서, 큰 언어들 간의 싸움에서 유일하게 영어에 맞섰던 그런데, 지금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상태죠. 영어가 훨씬 더 강력해져서 그 전쟁에서 예전만큼 진지하지 못한, 예전엔 치열했죠, 치열했는데, 이제는 좀 소극적으로 된 거 같아요. 그래도 프랑스어를 확산시키기 위한 문화원 같은 노력은 다른 언어보다는 되게 강력해요. 독일어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 안 해주는데, 프랑스어 원전 번역을 하려고 하면 프랑스 문화원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그 제작비를 대줍니다. 엄청나거든요 그 비용이. 몇 백 만원, 2~3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그걸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는 안 해줘요. 영어도 안 해줍니다, 근데 프랑스어만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의 언어 확산을 위한 노력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겨레신문 같은데서 한글화, 이런 것들 다 언어 전쟁의 형태인 거고. 그니까 언어를 지구 인구의 많은 부분으로 확대시킨다고 하는 건 아주 굉장한 파워를 어쨌건 갖는 그런게 되는데. 이게 다 전쟁 형태로 되고 있는 겁니다. 언어자체가.

#### ▲외부성이 없는 내부성

이런 식의 다차원적인 전쟁이 바로 내전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건데, 바로 이것은 제국주의 논리, 즉 외부를 흡수해서 내부가 확장되는 내외부의 변증법의 논리가 끝났기 때문이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부의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이 안경을 벗어버리고 내외부 변증법으로 본다고 해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국지적으로 봤을 때는 예컨대 미국이 이라크를 칠 때에도 미국 자체에 국익이라는 요소가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그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요소가 설령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부인할 필요 없이, 이 예전에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라 그랬죠. 각 개개인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살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서 그것들이 자기조절이 되가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기조절이 되가고 일정한 형평화, 균형 이런 것들이 창조된다고 봤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논리인데, 헤겔이 바로 그 생각을 철학에 가지고 온 것이 이성의 간지(die List der Vernunft)이죠. 그니까 이성이라고 하는게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타나는 국지적인 영역들에서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요. 그래서 고 작은 이득을 마치 취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이성들이 절대성 속에 큰 총괄에 의해가지고 결국은 그 작은 개인들의 이성적 활

동이나 집단의 이성적 활동이 절대 이성의 거대한 목적, 이것을 달성하는데 공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그와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각국의, 각각의 개별 국가들이 국익을 추구해 나가는 그 노력들이 제국에 동하게 되는 것이죠. 제국에 dynamic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가 없다는게, 내외부의 완전한 혹은 무익한 도식 그게 아니고, 커다란 틀, 패러다임 속에서 외부성이 없는 내부성, 즉 내재화. 내재화가 내외부라고 하는 이 분열을 포함해 버리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섭입니다, 포섭.

#### ▲철학에서의 내재화, 내재성

우리가 잠깐만 철학적인 이미지를 제시하고 쉬겠는데요.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내재화, 내재성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실체가 있으면, 이 실체 - 예전에 사람들은 이걸 향아리로 생각한 적도 있고, 자연철학자들은 우주로 보고, 그랬겠죠? 이 실체 속에서 이렇게 뭔가 현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게 이렇게 시간 속에서 표현해 나간다는 입장이죠. 근데 내재성이라고 하는 건 이 모든 현실적 움직임들이 이 속에서 전개된다는 입장이죠. 근데 이 내재성이라고 하는 거를 초월적으로 이해하는가, 비초월적으로 이해하는가에 이 논쟁은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고 이 내재성을 비초월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들뢰즈라거나 네그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재화 시킨다. 아주 포괄적인 주권 속에 내재화시킬 수 있는 거죠.

#### ▲주권과 삶

반대로 우리가 내재성의 비초월적 경로에 설 때에는 이 주권 그 자체를 아예 삶의 논리로 내재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상상력의 문제죠. 제가 그림으로는 잘 표현을 못하겠는데, 개개의 이익들을 주권들이 포섭했죠. 근데 이 주권이라고 하는 건 초월적 권력으로 나타나잖아요. 초월적으로 자율적인 권력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 이 주권 자체를 우리는 다시 삶이라고 하는 이게 주권이라고 하면 삶속으로 다시 역전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삶은 주권보다 더 크거든요. 항상. 주권이 아무리 크더라도.

#### ▲아감벤

요 삶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 주권 속에 모든게 다 들어가 있죠. 이게 아감벤 Agamben입니다. 그니까 아감벤의 예외상태의 논리서 보면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주권)속에 다 들어가 있는 꼴로 나타나요. 그니까 요게 없는 거죠. 주권이 삶을 다 포괄하는 걸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니까 주권이 더 크고 삶은 더 적은 겁니다. 파시즘이 바로 그런 것이고 삶이라고 하는 거를 형태에 다 가둔 거죠. 강제 수용소의 캠프에 다 가둔 거, 그건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였고. 거기에 대면은 주권이 삶을 다 먹어치웠기 때문에 삶에 자율성의 가능성 없죠. 끝나는 거죠. 그니까 대단히 비판적인 관점이 되는데...

#### ▲주권에 대한 네그리의 입장

주권이라고 하는게 아무리 크더라도 삶보다는 작다고 하는게 네그리 입장이거든요. 맑스

도 이제 그와 유사한 표현을 쓰는데, 의식과 존재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독일 이데올로기에 아마 나왔던 거 같은데. 의식과 존재의 관계를 보면, 의식이 아무리 자기의 내용, 규정을 풍부하게 해나간다 하더라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의식보다는 언제나 더 풍부하다. 그 표현을 써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의식을 넘쳐흐르는 그 내용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와 유사한 논리입니다. 그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보다는 더 크다. 규모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질에서도 더 근본적이다. 삶은 주권보다 근본적이다. 이게 아감벤하고 네그리 사이의 갈등, 거기에서 벌어지는 거죠. 많은 경우에는 주권이 삶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대중들의 무의식 속에는 이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주권이 더 근본적이고 규모가 크고, 삶은 부속덱지 안느냐, 다 쪼개져 있고, 개별화돼있고, 파편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죠.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별 수 있느냐 하는 결론. 그래서 기껏해야 저항정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뭔가 주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런 생각들은 광범위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어쨌든 돈을 벌어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지 라고 할 때, 돈을 벌라는 말은 현재의 주권 체제에 포섭이 되어라, 이 말이죠. 현재 주권이 돌아가는 건 돈에 의해서 움직이니깐. 권력을 잡아도 마찬가지고. 돈과 화폐는 하나니까. 그니까 주권의 일부가 되어라, 그래야 너는 살 수 있다. 즉 생이라고 하는게, 삶이라고 하는게 주권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다. 주권은 삶보다 더 크다. 이 명제를 끊임없이 생산하죠. 우리 일상에서. 근데 과연 그런가?

